



가족계획소식



<월간·제11호>

발행인 홍종관
편집인 김용환
인쇄인 김태동

발행소·가족계획연구원
서울서대문구 녹번동115
(우편번호120-02)
☎8003~7
1974. 5. 31 등록
라-1793호

요원을 위한

[1] 1975년 4월 15일

가족계획 평가세미나(1·2분과)

이「가족계획 평가세미나」(1·2분과)는 지난 3월 7~8 양일간 가족계획연구원에서 열린 1975년도 평가세미나의 토의결론으로 정부에 건의, 가족계획사업에 참고혹은 반영될 내용이다. 3월 평가세미나는 보사부가 주관하고 가족계획 연구원이주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후원한 회의다. 정부사업과 특수 사업평가는 여기 1면에 실고, 홍보사업(3분과)과 요원활용방안(4분과)은 8면에 게재한다. 우리 나라 가족계획사업의 문젯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편집자주>

정부 가족계획 사업평가

◆지방조직편리의 합리성 ①「먹는피의약」수수료 재활용에 의한 어머니회와 근간사 급료지급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②처우개선비 지급계통인 현가족계획협회→동협회지부→보건소 선임지부→요원으로 패있는 현법을 더욱 간소화 하여야 한다. ③UNFPA 자금요원의 급료는 예산상 내자계산되지 않았고, 이 요원의 시장·군수인명이 불가능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④어머니회 강화를 위해 이에대한 산을 시도예산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 제때 지급해서 제때 회의를 열도록함이 효과적이다. (UNFPA 지원 자금영탈지침으로 필요한 시기에 회의를 못하는 폐단이 있음) ⑤가족계획 어머니회 지도원의 위치가 불안정한데 이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서비스확충 ①개업의를 대량참여시키기 위해 지정시술의 제도를 지양하고 유료화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②영세민을 위해 보건소가 시술반 활동을 강화한다. ③개국약사및 기타 각종 현법을 통한 피임약제기구의 보급 확대 ④인공유산 목표량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⑤시술비·권장비의 인상, 특히 피임약 수수료의 인상, 콘돔의 유료화방안을 모색한다.

◆요원관리와 지도감독 ①보건소 지도원수와 업무량을 비교하여 필요 이상의 요원배치는 시정되어야 한다. ②보고서식의 복잡성과 기재의 중복등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 ③요원의 효율적인 활동지침이 결여되어있다. ④가족계획요원의 타업무지원에 대한 대책이 연구되어야 한다. ⑤지도감독반의

활동이 부진하며, 이의 활용및 체크리스트 이용에의 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사업통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목표량제정과 자체평가 ①각시도의 자체사업평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협조요원을 훈련하거나 평가전



◇ 3월 7일 오전 2백여명이 참석한 평가세미나의 개회사를 하는 홍종관 가족계획연구원장.

문요원을 파견하도록 한다. ②피임 방법별 목표량이 없는 종합평정제도에 관한 연구원의 시범사업결과에 따라 이를 조속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특수 사업 확대 방안

◆병원가족계획사업의 문젯점 ①보사부가 발표한 병원가족계획사업지침 중「각지정병원은 원내보건소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한다」라는 항목은 많은 무리가 있다. (해결방안: 「지도감독」의 어휘를 수정했으면...) ②보건소직원(가족계획요원)과 병원가족계획요원 간에는 피시술자 유치에 많은 알력이 있다. 따라서 병원가족계획요원의 가정방문

활동을 할수 없는 실정이다. (해결방안: 금년부터는 병원직제도 병원관내 보건소의 실적으로 포함되도록 시달됨) ③병원가족계획사업요원을 도에서 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무자격간호원이다. 이 경우 기존 병원 무자격간호원과의 봉급차이가 문제다. (해결방안: 유자격으로 대치요망) ④사후처리및 부작용에 대한 처리방안이 일관하지 않고, 일부병원에서는 부작용처치를 유료로 하는 등 각양각색이다. (해결방안: 이에대한구체적규정을시달토록하고부작용발생시가족계획사후관리 규정에의거 처리) ⑤복강경 불임시술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나 널리 알려지지않아 시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부분품이 고장났을때 병원자체에서 수리할수 없는 실정이다. ⑥여자불임시술비와 정관시술비 보조금이 3천5백원으로 똑같다. (해결방안: 시술비의 적정가를 재검토해야한다) ⑦「먹는피의약」의 적정가도 30원대로 적당하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병원가족계획사업은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유료화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시영세민사업의 문제점

①사회사업요원의 활용에대한 구체적지침이 시달되어야하며 서울의 10개센터에 7명만

배정되어 있는 실정임. ②앞으로 UNFPA 자금지원이 끊어졌을 경우의 대책을 포함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병원가족계획사업에는 복강경을 보급, 시술비가 지급되고 있으면서 영세민센터에는 전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있어 사업이 부진한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건조성이 안되고 있음).

◆기타단체 (애육위원회·노동청) 사업의 문젯점 ①가족계획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즉 본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족계획에 대한 동기조성을 할수 있는 요원양성이 필요하다.

<6페이지로>

지상천시실 ⑨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인구폭탄

20세기 후반기에 일시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고 동시에 모든것을 파괴할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등장했다. 바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다. 이들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구문제라고해서 인구폭탄이란 말이 새로 나왔다.

화약이 아닌 고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폭탄이 될수 있는나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는 인구폭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핵폭탄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사용되지 않는 한 인간에 피해가없다.

그러나 인구는 너무나 높은 증가속도로 계속 증가되는 한 지구 자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 이 위협하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순간에 생기는 원자구름과 같이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850년에 세계인구는 13억이었으나 1950년에 25억으로, 이후 더욱 급속히 인구는 증가하여 원자구름은 독버섯의 우산처럼 퍼져서 1970년에 인구는 36억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증가가 계속되는 한 서기 2000년의 세계인구는 65억에 도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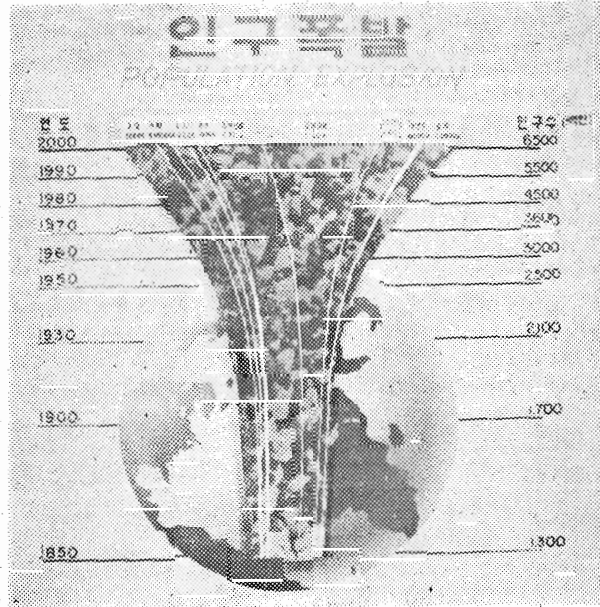
그러나 세계인구는 모든 대륙에서다같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된 국가와 저개발국가 간 인구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

유럽·북미·소련·일본·대양주등은 개발된 국가에 포함되고, 동

개발된 모든 국가의 1970년 인구는 11억, 저개발국가의 인구는 25억이었다.

그러니까 1970년에 세계인구의 31%는 개발국가에, 69%는 저개발국가에 있었다. 그러나 서기 2000년에 가면, 개발국가의 인구는 14억으로30년간 3억의 인구가 증가되지만, 저개발국가의 인구는 51억으로 30년간 26억 즉 1970년 인구의 배로 증가 될것이다. 이에 따라 서기 2000년의 세계인구는 개발 국가에 22%, 저개발국가에 78%로 세계인구의 대부분은 저개발 국가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높은 인구압력 속에서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은 촉진되기 어렵다. 저개발국가가 인구문제로 시달리고 있는한 현재의 개발국과의 높은 소득및 생활수준의 차이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인구폭탄은 저개발국가에 더욱 농도있게 폭발위험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1850년 세계인구는 13억, 1백년후인 1950년엔 25억, 1970년엔 36억으로 독버섯우산처럼 증가했다.

아시아·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등은 저개발국가에 포함된다.

<글·송건용 연구 2과장>

<요 원 수 칩>

난관수술.....그 부작용



난관수술은 난자가 정자와 만나지못하도록 난관을 잘라놓는것이다.

배꼽 아래를작게 찌고 하는방법은 아기를 낳은직후 (24~48시간이내)에 할수있는 기술이다. 질

벽을 통해서 수술을받는 방법은 아무때라도 할수있다. 복강경을 통한수술은 이중 껍 경제적이고 간편한 수

술이다.

이런 난관결찰수술등은 부인측이능동적으로 피임을 원할때에 편리한방법이다. 부부가 아기를 원하지않지만 남편이 협조하지 않아 아기가 생길 가능성이 짝을때, 부인측이 영구피임해버릴 경우이다. 또는 아기를 <이번만 낳고> 이젠 더낳지 않기로 부부가 같이 결심한 부인이 병원에서 출산을 할때 끝 가능한것이다.

루우프나 <먹는 피임약> 이 맞지않는데다가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지 않으려는 집에서는 부인이 난관결찰을 받는것이 편하다.

이 수술의 부작용은 거의없다. 그러나 난관을 잘라 뒀었기 때문에 벗

달간 아랫배가 당기는 중세가 있을수 있고 또 허리가 가끔 결릴때가 있다. 배를 쥘 경우는 특히 해수욕장등에서 걸으면 흉터가 보이게되어 흉하나 라파로스코피나 골드스코프등은 흉터가 안보이거나 아주 작게보여 성형외과적으로도 여성의 아름다운 피부를 계속해서 지닐수가있다.

그러나 복강경의 경우 난관을 전기로 지져서 끊기 때문에 다른 장기가 상할 우려가 없지 않으며, 특히 배꼽에 모인 모든 신경이 이수술로 인해 자극을 받을수도 있다.

역시 난관폐통에 염증이 있는 부인은 원인을 제거한후에 수술해야한다.

<편집실>

홍 공

외국 가족 계획⑥

홍공은 중국광둥성중남부의 주장(珠江) 입구에 있는 섬이다. 아편전쟁 이후 남경조약에 의해 영국령이 된 이래 영국의 대중국활동근거지가 됐다.

전체영토는 1만11.4평방킬로미터이며 홍공섬을 비롯 스톤쿰터섬과 그대안, 구룡반도 끝의 구룡시및 그배후지등 부속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향항은 홍공섬의 북안에있는 자유항.

전형적인 중계무역이 행해진다. 섬유제품·식품·금속제품과 텅스텐·안티모니·비단·차등이 유명하다. 주민은 대개 중국인으로 영국이 임명한 총독의 통치를 받는다. 영국이름으로는 빅토리아. 향항.

1960년대초 홍공의 인구는 약 2백 98만 1천명. 1968년 중반은 3백 92만 7천명. 이때 인구증가율은 1.6%였다. 조기출산율은 21.3%, 조기사망률은 5.6%. 1958~68년의 10년간 출생률은 17.5%가 줄었다. 65~67년 사이 결혼부인에 대한 출산율은 15%가 내렸다.

한편 1971년 3월 현재 3백 94만 8천 1백 79명인 홍공인구는 61년보다 26% 높고, 1973년은 4백만 2천명으로 나타났으며 1985년은 5백만 3천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6년 현재 가입여성(15~44)은 73만 1천여명, 76년은 97만 5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74년 11월 28일 홍콩가족계획협회 19주년 기념식에서 민정사(民政部)의 黎敦義선생은「홍공의 인구문제」에 대해 다음과같이 말했다.

「자연증가율은 성공적이다. 원인은 여러가지이나 그중 만큼, 부녀자의 직업선택, 교육수준이 높을뿐 아니라 최근 의무위생적 참여와 홍콩가족계획협회의 참여도에 있다. 그러나 홍콩역사 대가족제 경향에 실가임여성이 점점 늘고 있어 눈앞의 위험이 되고있다. 정부는 인구증가율을 내리기위해 사회운동적 가치가 있다고보며 72년 사회운동 참여를 결정하여 이민료소제, 가족계획에 역할을 두었있다.

홍공은 74년말 현재 시골인구가 모여들어 4백만인구로 대성시를 이루고있다. 홍콩 주위 신개발지역, 남중국인의 확대지구, 농촌에 인구를 이동시키야 시골이 황폐되지 않는다.

홍공은 세계각국 인구가 모여 성시를 이루는 추세에 농촌인구

가 둔벌려고 또 많이 불법이동해왔다. 이를 제도적으로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는 커녕 가난뱅이로 살게되고, 홍공은 이름뿐인 항구가될것이다.

정부가 할일을 단체가 대신하고있고, 또 정부가 마땅히 애로를 해결 해주어야할 것이다.」

이를 봐도 홍공의 고민을 알수있다. 73년 12월초부터 홍콩가족계획협의 수술실에서 정관수술을 시작했고, 여기서 시작한다 9개월간(74년 8월 현재) 2백 91명을 수술했다. 그전에는 전부 정부의원이 나 기타 의원에서 정관수술을 시행했다. 72년은 1백 34명, 73년은 1백 35명을 정관수술했다.



◇ 「집집마다 4 식구로 행복한생활을 누리자」는 홍콩가협의전시관.

를포함해서일간지에가족계획신문담을 설치, 친절히 문의에 응답하고 있다. 가족계획에 대한 원고도 모집한다.

홍공 가족계획협회는 작년 인구문제 해결에 관한 7개건의 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내용은 10년안에 실가임여성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복지·교육·위생·건강·교통·주택등시설대책이 서야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①사회경제정책에 인구정책감안해야 ②관계단체와 정부간의 협조·연구필요 ③현행법중 여자아이 많은자에게 면세액 놓이는 것과 가족많은자에게 주택을 우선으로 주는것등은 검토·수정되어야 한다. 각급학교에서 성교육지식을 주입시킵것. ⑥남자차별없는 사회보장계획으로 양노금제도를 뒤엎어 늘어서 아이들이 의존할생각이 없어진다. 남녀평등·소가족제도를 구상. ⑦인구증가율 0%달성하려면 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하고, 결과 대중생활이 높아진다. ⑧정부에서 대중 홍보활동 추진할것. 관계단체를 경유하거나 직접 가족계획에 임해야한다.

홍공가족계획 지도회의 지도소는과거 5천 7백가구당 1개지도소로 세웠으나 지금은 4천가구당 1개지도소를 설치. 「집집마다 4 식구로 행복한생활을 누리자(一家四口, 生活優游)」는케치플레이즈를 거리마다 그림으로 전시하고 있다. 홍콩가족계획회의의 이러한 보람이있어 73년 가을 드디어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에 참여할 것을 선포, 생육지도소를 중설하고, 특별야간진료를 폐지되어 부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73년 현재 전체인구중 15세까지가 34%, 15~64세까지가 61%, 65세이상 5%이다.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4천 10명인데, 일종의 자유도시 국가에서 이런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지도소는 49개여성절육(節育) 지도소와 2개남성지도소 및 남성 절육수술실, 그리고 혼인생활지도소와 1개생육지도소가 있다. 여기서 73년 총진료자는 36만 4천 7백 82명인데, 72년과 비교하면 6.63%가 증가. 인구·가족계획교육은 여성회관·YMCA등과 홍콩대학교등 각대학및 대학교, 지역사회교육, 사회지도요원, 윗과대학을 통해 세미나등을 언제든지열고 있다.

홍공현재는 영문과 중국어로 발표해서 소개하고, 그외 필름과 TV·라디오·신문등 전파문의 전담회도 개최한다.

73년 자녀수는 15~24세부인이 1·1명, 25~34세가 2·2명, 35세이상 4·7명으로 69년보다 많이 낮은 편(35세이상 5·1명중)이다.

지도소에서 73년도에는 2천 8백 94가구를 탐방해서 62%가 실천에 성공, 평균 탐방수는 2·3차이다. 73년 2만 8천 8백 47명의 결혼적령여성중지도소 예비진료가 1만 7천 6백 43명으로 전체의 61·16%가 진료를 받았다.

73년도 피임방법 통계를보면 「먹는 피임약」 6만 2천 3백 48사이를, 72년도보다 17·02%증가. 루우프 1천 2백 41명, 72년보다 12·97% 감소. 홍콩 가족계획협회에서 「아루사」 T형 루우프 2백 55명, 72년보다 47%감소. 기타 페사리·발포정·콘돔·연고등은 72년보다 10·19%증가. 난관수술은 1백 41명 소개자중 1백 32명이수술. 정관수술은 1백 35명 시술자 가운데 클리닉에서 한 인원은 16명이다.

<기록·편집실>

68년도 인구자연증가율 1·6%

정부가 적극 참여, 증가율 낮춰

73년 4백만 2천명, 85년 5백만

<경험담>

시어머니의 가족계획

김 대 업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던 나는 처음 발령을 받아서 부락에 나갔을 때 시어머니 슬하에 있는 아주머니를 택은 가정방문을 하지 못했다. 설사 가정방문을 했더라도 가

족계획을 권장하지는 못했다.

차츰 동네 아주머니들과 친해지면서 나중에는 그분들의 시어머니와도 가까이 지낼 수가 있었다.

「할머니! 내 자식 기르시느라 오줌 똥 마를 날이 없으셨는데 또 울망졸망 손자를 등살에 고생하시렵니까?」

이런 내 말에 할머니들의 반응은 좋았다. 그 뒤부터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택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어떤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들 하나면 어떻소? 우리 머느리도 아기 안 낳도록 해 주소.」

「내가 어찌 못 낳으라고 하겠소. 아주머니(나)가 그만 낳으라고 말하소. 터 팔 때가 되었는데 큰일났소.」

「많이 낳아 뭐 하는고?」
「내 것 내 먹고 살았제, 자식 덕 안 났다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쓴웃음을 짓는 할머니가 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을 하나 낳기 위해 5공주를 두고도 더 낳을려는 부모가 있다. 아들 뿐인 사람은 재롱떠는 딸을 얻기 위해 또 자꾸만 낳는다.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지만 시어머니 중 어떤 할머니는 머느리의 손을 잡고 루우프 시술장소에까지 오기도 했다.

이렇게 시어머니들의 가족계획사업 협조 의식은 날로 달라져 가고있다.

눈송 안 받으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뛰어야하는 것이 가족계획사업이다. 무척 어려운 <계몽>이라고 느끼면서도 흐뭇한 보람속에 1년 반의 세월이 흘러갔다.

<경남 진양군 대평면 사무소>

요원들의 광장

<요원의 시>

해가질 무렵이면

이 영 속

해가 질 무렵이면
길거리에 늘어진 내그림자를 이끌고
나는 바닷가로 나들이 갑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과도소리는 고운 나래짓이됩니다.
고운 나래짓으로 되살아나는
내 어린 시절의 파란 울음보자기
늘에 젖은 하늘에 펼쳐집니다.

해기 질 무렵이면
내 발길은 어느새
아랑지는 물결을 찾아갑니다.

오! 거기에는 내 성숙한 그림자
내 파란 울음보자기가
맑은 물결로 피어납니다.

<제주도 남군 중문면 사무소>

봄 소 식

윤 일 순

숙아!
보릿고개 넘을 때
부르던 그 노래
오늘 또다시 불러보자.
손에 손잡고
먼 길 걸으며
출장 다니던 기억
뿌연 먼지 뒹으며 주고받던
그 아주머니들 목소리 새롭다.

울망졸망한 어린이들
내 자신의 일에 버거움보다도
코 흘리며 바라보던
그 까야만 눈동자
내 먼 후일에도
잊지 못할 것이다.

소박한 마을 아주머니들
어느때 답답하여 울먹일적 있지만
이해 속에 고개를 끄덕이는 보람
또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숙아!
하얀 가운 웃소매 걸어올리고
푸름에 쌓여간 봄언덕
봄의 언덕길을 넘어가 보자.
우리를 기다리는 마을
그 마을 아주머니들을 찾아서....

<전남 강진군 도암면 사무소>

술안주야 될 말인가?

공 경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정관시술대장자가 있었다. 무슨 임방법으로도 안되는 그직원의 부일이 하도 딱해서 내가 남편에게 바세토미를 권장했다.

같은 직원에게 바세토미를 권장하는 일은 바로 내가 하는일 중의 나이기도하다. 그 직원에게 정관술을 권장한 바로 그날 나는 야릇한 농담을 들어야만했다.

「어이, 이 친구야. 까라구, 까라구, 까라구. 오를 저녁 술안주를 자주! 어때?」

여러 직원들이 모여서는 큰소리이렇게 떠들며 웃었다. 그 직원에 모두 한마디씩 핀잔을 주는것이니 흡사 내가 들으라는듯이....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났다. 달아온 얼굴을 갈아앉히려는 조용히 그 직원을 만났다. 시 한번 정관시술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대오히려 「까라구, 까!」라는 동료들을 보다 더 완강하게 반대하지는가?



이번에는 '은근히 화가나서 조금 기침은 소리-어 떤데 충고에 불 하지만-을 했다고 했더니만 이제 서는 나에게 사 한 소리(?)를 는 것이다. 나는 없이 들아서 나 버렸다.

하고 안하고는 심각한 자기들. 제가 아닌가? 방장 눈앞에 탁연실을 언제까지고 장난으로만 여겼정인가? 그렇대도 그건 내 잘못입니다. 아직까지 그 직원의 정신자가 틀린 거라기 보다는 가족계획 대한 질실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고 해주자.

「내가 그만큼 권유하면 알만한 람이다. 그런데도 반발하는 것은 제 내가 관계를 하지 말라는 어 나 다름없다.

어느때인가는 각성을 하겠지. 그 고 나를 필요로할 때가 있을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서 나는 개운치않는 마음을 다. <경남 산청군 차황면 사무소>

문의 광장

<수 필>

사랑하는 호미와 낮 이 영 순

간의 수는 무릇 헤아릴 수가없 많다. 이 지구의 꼭대기까지 인 자연을 지배하며 살아가고한다. 러나 인간이 있는 곳에는 가난 고, 개인주의적인 비극이 존재한

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2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아직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다.

딸만 아홉을 낳 아도 아들 육십을 내는 부모를 나는 보았다. 아들 좋아 하기는 농촌일수록

더하다. 농촌가정은 아무래도 아이들 가정보다 훨씬 더 많고, 여기 넓고 굶주리는 것이다. 이건비 다. 인간의 지혜로 없앨 수 있 비극을 사서 겪는 것이다.

이런 비극 속에서 단연 주인공이 울고 웃는 이가 있으니 그가 어머니—그대들이다.

아무살이 인생에 날뎠팔이를 하면 부인이 갑자기 병들어 눕게되 때—누은 부인 옆에는 우글거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 적이 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 이다.

그 부인은 10여년전부터 권장 가족계획을 남의 일처럼 외면 했는가? 자식들만 주렁주렁 조롱박처럼 낱겨놓고 결국 눈을 감은 것이

인을 잃은 남편은 술주정뱅이— 매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는 밤 야 대문을 두드린다. 불쌍한 것 이집 어린 아이들이다.

호미와 낮을 사랑하는 농민들이여, 아들 주워옌 아직도 이런 가정이 다. 내가 본 이집은 결국 말이아 이 망해가는 것이었다.

와 비슷한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주의를 기울여야겠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도시를 기뻐한다. 기회만 있으면 농촌을떠 는 것이다.

도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날 푸는것을 가르쳐주자.

<경남 진양군 내동면 사무소>



「정주 군수는 자전 거를사겠다!」 이런 말을 전국가족계획 위원들의 입에 오르내 리기 시작했다. 경북 성주군에서 올라온한 건축 (韓市淑) 요원이 교육시간에 「우리 군 수님은 자전거를 사겠다」라는 자랑 을 하고부터 이말이 전국에 뱅돌았 다. 「정주군수 뿐만아니라 칠곡군수도 자전거를 사준다고 약속 했대요. 요 원 캐비닛도 비치해주고....」 이어서 이런 말도 들었다.

이번 차례 <보건소 탐방>은 자전 거를 사준 곳마다 앞으로 사줄 곳 (?)을 찾기로 했다. 구본경 (具本敬) 경북도 가족계획계장은 칠곡군수 의 약속에 대해 예상을 우려하면서 「왜 사전에 연락 안하고 왔느냐?」 고 못내 섭섭해 한다.

이어서 그는 「우리도에는 이미 정 판시술 1백%다한 군이었다」고 흐 못한 자랑.

대구가 그래도 서울보다는 남쪽이 라고 글썄 개나리꽃이 노랗게꽃피어 있고 수양버드나무잎이 파릇파릇 하 다. 서울에는 아직도 꽃잎이 피지않 을때였는데! 흙냄새가 물씬물씬나는 칠곡편을 거쳐 다시 군청과 보건소 가 있는 왜관읍을 들렀을때는 4월 초순의 오후 햇빛이 나른했다. 대구 에서 북북길로 18킬로 달리면 미군 부대가 있고 6·25때 전투가 심했 던 기름진 왜관읍이 나타난다.

보건소와 군청은 의 좋게 나란히 왜관동언 덕에 우뚝서 있다.

신현철 (申鉉轍) 소장은 50대의사, 권순기 (權順基) 계장이 자상 하게 알려준다. 옆에 서는 선임지도원 김순 애씨 (金順愛) 가 한 마디씩 거르고.

「우리 군은 농업인 구가 80%; 등록된 석 전종(미군부대 후문)의 양공주가 5백여 명이나 되고요, 떠돌이까지 합하면 7백 여명은 될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성병진료 소를 설치해놓고현재도 4~5명의 환자를 데리수용합니다. 1주 2회 검진을 나가 는데 불합격자는 우리 진료소 손님이 됩 니다.」 왜관의 특징이기도 하다. 양공주 들에게는 루우프나 콘돌봉을 제공하지만 루우프는 잘맞지않아 쓰는 사람이 드물 고 콘돌은 미군들이 쓰기를 꺼려한다는 것. 그래도 자자 알아서 피임방법을 쓰 고있다. 「오지·백지는 관내시술의사를 동원해서 이동시술합니다. 일손도 덜고 , 시부모에게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현지

보건소 탐방

⑦

경북 칠곡군을 찾아서



◇어느날 어머니회장들과...오른편 위로부터 김영희 (세째) 김순애 (다섯째) 신동길 (아홉째) 씨.

에서 손쉽게—」

1차 도이동시술반 (2월19~21일) 이황 을 때는 눈도오고해 서 실적이 낮았지만 88명이다. 3월 20~ 31일 관내시술반 동 율때는 1백50 여명 의 실적을 올렸다. 칠곡군은 박맹 자요원이 수고하는 가산면과 허삼순 요원이 고생하는 인동면이 오지에속 한다. 하루 출장으로는 모자라는 지 역이 많다.

칠곡군 인구는 11만6천7백8명에 남자가 5만8천3백31명, 여자가 5 만8천3백77명, 가입여성은 2만여명, 1백87개동을 요원 10명 (보건소지도 원제외) 이 평균 18개동씩 맡아서일 한다. 1읍8개면에 선임지도원의 신 동길·장정순지도원이 있고, 읍소에는 김영희·박정숙요원, 면소에는 신정섭 (지천·정순자 (칠곡)·정희숙 (동명)·김정자 (석적)·송부식 (북삼)·박 혜영 (양북) 요원 등 모두 13명이다. 이중 김정자·박혜영 요원만 미혼이다.

「1요원이 18개동을 맡아야 하기때 문에 애로가 많아요. 타담무지원을 될 수록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8개 면장님들이 가족계획 사업에 이해를 가지도록 힘쓰고 있어요. 면장님들과 면담을 할 작정입니다. 결국 임시직이 아닌 요원의 양정화가 시급합니다.」

권계장의 말이다. 74년도실적은 「먹 는피임약」이 1백6%, 콘돌이 1백 13%이고 그외는 모 두 1백%이다. 특히 정판시술은 읍면소재 지에서는 잘되지만오 지에서는 실적이 신 통치않은대신 여자에 게 부담이 많이간다.

올해 사업계획은 정 판 86, 루우프 1천3 백20, 「먹는피임약」 1만2천3백84, 콘돌 7천2백인데 3월말 현재 이미 40% 실 적을 올리고 있고 4 월말까지는 50% 실 적을 올릴 계획이다.

5~9월의 농번기는 사업을피하려 하고 있다. 요원을 중에는정판시술을 안해냈다 가 수술 후 임신이돼서 <집안 싸움>까지 일어나 참관관해진 일도 많다는 것이다.

칠곡군 요원은 캐비닛을 좌편에다끼치 했다. 30여보건요원의 가운데 「1차추경때 맞춰주기로 했으나 다음추경 때나 반영 될것 같다」는 현지소식이다. 자전거는칠 곡군수에게 가족계획요원들이 「사달라」 고 건의한적이있었는데, 그때 군수는 「예산이 돌아가면 사주겠다」고 약속했다는것. 요 원들은하나같이 「우리군수님 (?) 이자전거 를사주시도록...」 기다리고 있는실정이다.

<글·당원문헌정보과 신세훈 연구원>

피임약 무료분 많이줄 수 없는지?

소화제·감기약도 구급약으로 필요

「가족계획사업실천요강」에 의하면 「먹는피임약」 무료공급대상자는 국민자로서 이를 시·읍·면·동장이 확인하는 자에 한하여 무료로 공급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요원추천에 의해 소장이 결정

이 무료 보급량의 상한선은 전체 「먹는 피임약」 보급목표의 10% 이내이며 단 10%가 넘을경우 10%이내로 하기위한 대상자 선정은 요원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전체 복용자의 1.8%가 무료

현재 「먹는 피임약」 복용자중 무료혜택을 받는 비율은 전체 복용자의 1.8%로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무료상한선의 반도 혜택못받아

지역별로는 서울·전북·제주의 3개 시도에는 무료 혜택을 받은 복용자가 한명도 없는 반면 비교적 무료로 공급받은 자의율이 높은 강원도와 전라도도 무료상한선(10%)의 반도 못되는 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도시·농촌별로 보면 도시의 무료혜택자가 0.1%, 농촌이 1.7%로 도시에서는 무료로 「먹는피임약」을 공급받는자가 거의없는 실정임을 알수 있다.

대부분 이용 않는 실정

무료대상자가 무료상한선인 10%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대상자가 무료보급을 원하지도 않고 (30원의 수수료를 부담으로 생각지 않음)

둘째, 구호대상자는 대부분이 노약자로 피임대상자에서 이미 제외된 경우가 많고 또한 피임대상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시·읍·면·동장이 확인하는 구호대상자 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대부분 이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현재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먹는 피임약」은 무상원조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으나 1976년도 하반기 부터는 외원에 의한 「먹는 피임약」의 지원이 중단되고 정부예산에 의하여 대처해야할 입장에있다.

수수료 인상을 고려 할 단계

「먹는 피임약」 수수료 30원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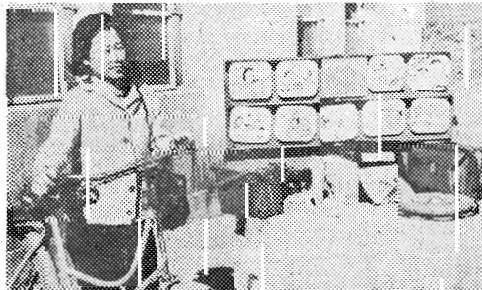
머니회 군간사의 인건비와 어머니회 육성비로 재할용하여 왔으나 부인들의 「먹는피임약」에 대한 가치관과있을수있는 현실량을 감안하여 수수료의 인상을 재구상할 단계에 이르렀다.

지방별 조정이 바람직

상기와같은 여건하에서 무료공급의 상한선을 높인다는 것도 일정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고해야 할 문제이나 실제로 현규정으로 되어있는10%의 상한선도 적절히 이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현규정을 좀더 완화하는것 보다는 각 시도 또는 군단위자체에서 조정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무료라도 증빙서류 따라야

수수료 30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않는 도시 지역의 대상자 보다는



◇오지·벽지·도서지방에서는 피임약 무료분 뿐만아니라 구급약도 필요하다.

농촌지역, 특히 벽지·오지·도서지방의 구호대상자 중 「먹는 피임약」을 원하는 자에게 「먹는 피임약」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현 규정(시·읍·면·동장의 구호대상자 확인증을 첨부하는 등의 규정)대로요원이 추천하는 자는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좀더 완화할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먹는 피임약」 수수료에 따른회계규정에 맞추어야 하므로, 비록 무료라 하더라도 필요하고 확고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

구급약은 보건소 자체계획대로

각종 피임방법 실시중 부작용을 일으킨 경증환자에게 줄 아스피린·소화제및 감기약의 공급은 현단계에서는 보건소 자체계획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불임수술이나 자궁내장치중등은 시술의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시술비에 사후관찰비를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겠다.

요원투약은 현행법에 저촉

보건소 혹은 관내 의사의 순회진료때 간단한현투약은 가능하나 요원 자신이 아스피린·소화제및 감기약등을 공급한다는것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요원은 사후관리에 역점

따라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처리는 해당 시술의사 또는 보건소에서 쉽사리 이행될수 있도록 요원은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글> 당원평가1과 오남균 연구원

>원 고 모 집<

「요원들의 광장」은 여러분의 광장입니다. 일선 계몽활동 중 느낀 감상문·경험담·수필이나 시(詩)등을 2백자 원고지(원고지 아니라도 좋음) 5매이내로 써서 사진과같이 보내주세요.

「가족계획소식」편집실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문예작품·건의문등)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① 「요원수첩」(2면)……필요한 내용을 메모해 주세요.

② 「요원들의 광장」(4~5면)……요원의 시(詩)·수필·경험담 등.

③ 「발언대」(7면)……시정·애로·건의사항을 싣고 답변.

④ 8면기사……여러분의 기사거리를 보내주세요.

<편집실>

<1 페이지에서>

즉 정부사업은 시술면에 치중하고, 각기관에서는 콘돔및 먹는 피임약배부등을 맡아했으면 효과적이것이다.

②자원 지도자들이 피시술자를 정 부기관에 위촉했을 경우 신속히 처리할수있는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

③자원지도자가 피시술자에 대한동기부여및 안내로 시술했을 경우 권 장비 지급의 문제가 강구되어야한다.

<기록·편집실>

어머니회를 통한 가족계획 보급

어머니회의 조직 목적은 「어머니로서의 자질향상과 계획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계획을 생활화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동정신을 길러 둔후한 인심 풍요한생활, 풍치증은 고장 건설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고 되어있다. 이와같은 어머니회의 조직 동기가 어떻게 전국 농촌지역의 마을마다 심치어는 도시에까지 어머니회의 조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회는 그를 지역 실정과 회원의 특성따라 조직 형태나 내용의 차이를 갖는다.

어머니회 활용은 어떻게?

이러한 리·동 단위의 어머니회는 그들 조직의 형태가 어떠한 가족계획 요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있다. 즉 어머니회 자체가 회원간의 협의에 의한 구성체이고 보면 회자체가 추구하는 내용도 <달라질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요원들의 활동 거점이 반드시 어머니회가 될수는 없다. 만약 어머니회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리·동 단위의 가족계획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

1968년 어머니회가 조직된 후의 사업과 어머니회가 조직되기 전의 사업은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어머니회는 조직 목적에서도 명심된바와 같이 이들 회를 <가족계획요원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과도 높아질수 있는 것이다.

가족계획은 회원생활의 일부

이러한 점은 가족계획사업이 어머니회에만 의존하여서는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과같다.

요원들은 늘 어머니회가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기바라는 피동적인 자세보다도 어머니회 자체가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하여 요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역 단위의 어머니회를 지도 육성하며 가족계획이 회원 생활의 일부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어머니회 특성 잘 파악해야

이러한 점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어머니회를 지도육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즉 요원들은 각 리·동 단위로 조직된 어머니회의 특성을 파악하기위하여 어머니회원의 인적 구성(연령 및 학력)을 정확히 파악하며, 어머니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머니들의 특

성도 파악해야할 것이다.

어머니회는 그들 조직이 특정 조직과는 달리 지역 사회 개발에 큰 의의가 있으므로 그 지역 어머니들이 광범하게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회장은 연령층별로 2~3명

한 조직내에서 회원간에 연령차가



◇요원은 어머니를 회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심하면 상호간의 대화에 간격을 갖는다.

이러한 뜻에서 회원은 20~40대의 회원으로 부회장은 연령층별로 2~3명을 두어 조직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또 요원은 가끔적 어머니회의 때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파악하며, 어머니회가 필요로하는 내용을 듣는 방

향으로 노력하여 가족계획사업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원의 노력에따라 성과 달라

한 조직내에서 가족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회원에게 주는 영향은 큰 것이다. 각종 조직을 통한 사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론의 공합은 다수의 의견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어머니회를 통한 가족계획사업은요원이 얼마 만큼 어머니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느냐에 가족계획 보급로의 확대도 판명되는 것이다.

더 없이 좋은 조직 맘껏 활용

어머니회는 요원들을 위한 최종단 위치의 유일한 보급로 또는 협조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족계획사업이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이들에 의

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또 이들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족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더 없이 좋은 조직은 없다.

관내조직과 마찰 없도록

그러나 요원이 관장하는 지역내에서 어떠한 조직과도 불신의 동기가 유발된다

면 과거 많은 기간동안 노력해온 사업도 <손실이 크게 된다>는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직이 갖는 힘은 개인의 힘의 집합으로 그 여론도 큰 것이다. 가족계획의 계몽은 이러한 조직의 장점을 되도록 효과적으로 이용할때 그 성과도 기대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글·당원지도과 이영희 실습강사>

<발 언 대>

바로 보낼 수 없나? 「가족계획소식」내 이름으로 신 현 속

가족계획연구원에서 우리 요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내는 「가족계획소식」이 요즘 거의 남의 이름으로 배달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요원들이 그동안 이탈되고 이동되었다는 증거인지는 모르나, 남의 이름으로 받아보는 요원이 한두사람

이 아니다. 이왕 하는 집에 각각 자기이름으로 받아볼수 있도록 해 줄수는 없는지?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사무소>

【대답】요원주소록을 지도과에서정리중이다. 이 완전한 최근 주소록이 정리되어 넘어오는데로 시정해서 보낼 작정이다.

평균 1개월에 수십명씩 이탈·전적이 있어 정확한 주소와 이름을 곧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즉시 신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편집실>

가족계획 평가세미나(3·4분과)

홍보사업의 문제점

① TV·라디오·신문·잡지등 대중매체를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집과미디어의 경우 가족계획에 역효과적인 프로(장수무대)를 역이용함으로써 더욱 효과를 올릴수있다. 「가정의 빛」은 관계자에게만 배부하지 말고 실제대상자에게까지 배부토록 부수를 늘려 가족계획의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 배부방안이다.

② 가족계획사업상 직장을 초래하는 각종 루머를 모아 과학적인 설명을 제시, 계몽사업의 벽을 허물어야한다.

③ 가족계획의 시각적계몽을 위해 전국의 약국·가게에 피임기구 전시판을 설치하여 피임을 계몽 선전해야한다.

④ 새마을 방송협의회에 인구및 가족계획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방송프로그램에 가족계획분야 기획이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필히 보사부·가족계획연구원·가족계획협회쪽의 인사가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⑤ 가족계획관계 메시지가 해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가족계획관계 메시지뿐만아니라 살림의 힌트등 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다목적화 해야한다.

⑥ 유관단체요원들이 행정중적으로 서로 단절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중앙과의 대화의 기회를 수시 마련하여야한다.

⑦ 도시에 새로운 조직체가 탄생함에 따라 이들 단체를 적극 활용한다. (어머니교실·노인회·향군·경우부녀회등)

⑧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 조산원에게 우수프시술자격을 조속히 부여하여 오지·벽지·도시지방의 대상자에게 시술편의를 제공해야한다.

⑨ 시청각 보조자료를 대담하게 제작해서 홍보·교육·계몽시켜야한다. 예를들면 남성성기모형도를 제작해서 그위에 콘돔을 씌우는 방법을 부인들에게 알려주자.

⑩ 유급 어머니회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양성화시켜서 벽지·오지·낙도의 가족계획 사업강화에 힘써야한다. 현재 가족계획협회에서 일부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유급 어머니회장제도는 가족계획요원보다 훨씬더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가족계획 요원과 유급 어머니회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이 바람직하다.

요원의 활용방안

◆ 조 직

① 농촌지역은 1개면 1요원을 원칙으로 하되지역사정을 고려요원을 증배한다.

② 도시지역은 이동시술반을 활용하고 인구밀집한 영세민부락은 가정방문을 위해 1개동 1요원을 증배한다.

③ 가족계획사업 장기계획에 따라 요원을 점차 현재수보다 증가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보다 감소시키는 것은 고려될수 없다.

④ 예산이 허용하는한 오벽지 어머니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확대한다.

◆ 인사관리

① 요원 입면은 도사업주무계통의승인을 얻어 보건소장이전결토록한다.

②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③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④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⑤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⑥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⑦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⑧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⑨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⑩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⑪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⑫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⑬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⑭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⑮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⑯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⑰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⑱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⑲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⑳ 보건요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계

획은 피해야한다.

⑳ 농촌과 도시는 환경이 다르므로 ㉑ 농촌에 있어서는 자유중국이나 필리핀과 유사하게 하여 사실상 자기관할지역의 전대상자를, 가정방문이 불가능한 지역은 가족계획 어머니회와 기타 여러기관과 자생조직을 이용, 계몽교육이 되도록 개선하는동시 가정방문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방문토록 한다. ㉒ 도시의 가족계획사업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기위해 가정방문을 전문으로 하는 요원, 사업체를 전문으로 하는 요원, 내소자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요원, 영세지역 전담요원등으로 기능을 전문화해야하며 나가서 계몽기술을 다양하게 숙지토록 교육훈련해야한다.

㉓ 이동시술반의 운영계획이 일선요원의 신용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계획된 일정에 외거 정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업무지침 목표량을 중심으로

① 목표량은 도별로 배정하고 각도가 시군지역의 제반특수성과 가변적요인을 참작하여 배정토록 함이 이상적이다.

② 특수사업(병원·영세민사업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 자질향상

① 요원연령의하한선을 높여 25세 이상으로 하자.

② 결원자 발생시 지역특성 감안하여 가능한 한 고졸이상의 유자격자로하되 간호원·조산원을 우선 채용해야한다.

③ 요원의 훈련을 좀더강화하여 전달교육이 가능하게끔한다.

◆ 급여수당

① 타보건요원과 기타 공무원의 봉급수준을 감안, 점차 개선해서 요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② 제수당은 이를 농률상여수당의형태로 연구·개선할 필요가 있다.

◆ 다목적활용방안(통합)

① 통합원칙은 찬성하나 타보건요원의 질과 양적문제가 있어 사업발전을 위해 가족계획요원을 주축으로하여 통합되어야 한다.



◇ 평가세미나를 하던날...홍준관가족계획연구원장(앞줄 중앙), 김용관부원장(그오른편), 이주현가협사무총장(왼편)의 열정이 보인다.

통적인사관리는조속히지양되어야한다.

③ 시·도는 요원의 빈번한 이동을 방지키 위해 이동후 1년내내 인사를 금지하는 인사규정을 만든다.

④ 연고지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자질·근무성적등을 감안 광평원칙에반하지 않도록한다(정실인사배제).

⑤ 보건소장·지소장등 요원관리 책임자의 공석이 없도록한다.

◆ 직무환경

① 요원이 타업무에 종사하는 경향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